

# 3년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 와인 한잔으로 더 풍성하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이 코앞이다. 특히 이번은 감회가 다르다. 팬데믹에 '홈추·홈설(Home+추석·설)'만 지나다가 3년만의 대면 명절이다. 소소하게 기쁨 냄새 풍길 전과 와인 한 잔만 있어도 좋지만 역시 명절은 마주보며 떠들썩해야 제 맛이다.

이번 추석 와인 담당은 머리 좀 아프게 생겼다. 지난 3년간 와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초보자인 '와린이(와인+어린이)'부터 까다로운 애호가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와인을 찾아내야 하니 말이다.

먼저 와린이들을 위한 와인이다. 명절 음식은 물론 음식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소위 '만능템'이다.

명절 음식 대표 선수인 전 요리에는 뭐니뭐니 해도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을 먼저 집을 수밖에 없다. 와인의 상쾌한 아로마와 기분 좋은 산도가 전과 같이 기쁨이 많은 음식의 느낌함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



(왼쪽부터)돈나푸가타 안필리아, 벨 콜레 바르베라 다스티 슈퍼리오레 DOCG 누안다, 덕훈 디코이 멀롯, 마셀드상제 부르그뉴 오프코뜨드본 피노누아, 케이머스 나파밸리 카버네소비뇽, 몬테스 알파엠, /나라셀라

'돈나푸가타 안필리아'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의 토착품종인 카리칸테에 다른 화이트 품종을 섞어 지역색을 간직한 와인이다. 향긋한 아로마와 함께 신선한 느낌이 짝 들어차 있다. 달콤함 속에 기품 있는 과일의 느낌이 인상적이며, 들꽃의 향기도 느낄 수 있다. 9~11도로 시원하게 마시면 더 할 나위 없다. 음식을 차려내기 전에 식전주도 한 잔씩 해도 좋고, 가벼운 요리와 함께 곁들이기도 편하다.

명절 상차림에 빠질리 없는 육류 요리에는 역시 레드 와인이다.

'벨 콜레 바르베라 다스티 슈퍼리오레 DOCG 누안다', 길고 어려운 이름이 영 불편하다면 누안다로 기억해보자.

원래 누안다(Nuanda)는 인디언 수장이 강인함을 상징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새기는 번개 문양을 뜻한다. 누안다는 이름에 걸맞게 갈비찜이나 산적 등의 양념 맛에도 밀리지 않을 묵직한 와인이다. 과실향이 조화롭게 피어나며, 입에서는 신선하고 지속적인 산도와 탄닌이 조화를 이룬다.

'덕훈 디코이 멀롯'은 신세계 멀롯의 기준을 세운 덕훈에서 만들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은 와인이다. 진한 과실에 다크 초콜렛이나 삼나무향이 어우러져 구운 고기와 같이 한 모금하면 부드러운 탄닌이 고깃결에 스며들어 그야말로 일품이다.

이번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와인이다.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부터 미국, 칠레, 이탈리아까지 구세계와 신세계를 넘나들지만 명성만은 서로 밀리지 않는다. 와인애호가들의 높아진 입맛에 맞추기도,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하기도 좋다.

'마셀드상제 부르그뉴 오프코뜨드본 피노누아'는 평균수령이 40년 이상인 포도나무에서만 포도를 수확하며, 서늘한 기후를 그대로 담아 좋은 산도를 가지고 있다. 와인을 따르고 바르는 유기농 와인 특유의 쿼퀴함이 느껴지지만 곧 날아간다. 신선한 과실향과 함께 부드러운 탄닌으로 마시기 편안한 와인이다.

'케이머스 나파밸리 카버네소비뇽'은 투박하지만 귀족적인 와인이다. 짙은 색상과 풍부한 과실맛에 복합적인 풍미, 벨벳 같은 탄닌으로 와인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카버네 소비뇽이라는 단일 품종이지만 8개의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포도를 섞어 매해 기복없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한다. '단짠' 양념갈비나 진득한 소스의 음식과도 먹기 좋다.

'몬테스 알파엠'은 와인은 몰라도 다 안다는 '몬테스 알파'의 프리미엄급이라고 보면 된다. 카버네소비뇽과 카버네프랑, 멀롯 등 이른바 '보르도 블렌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과실의 향과 후추와 같은 향신료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육류 요리라면 대부분 잘 어울린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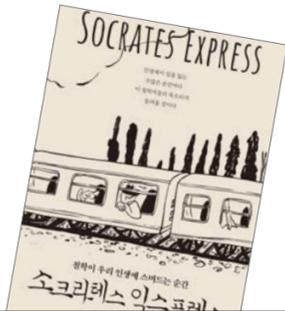
### 루소·니체 등 세기의 철학자를 만나다

인품이 뛰어나 본받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다. 그의 훌륭한 성정을 보여주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보겠다. 대학원 다닐 적에 램미팅(연구실 회의) 자리에서 박사 하나가 이유 없이 이 친구의 연구물들을 까대기 시작했다. "인풋값을 왜 그렇게 설정했냐", "그래프 모양이 이상한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느냐" 등이 미 회의 때 다 설명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필자는 '교수님도 잘 해왔다고 칭찬한 판에 제까짓게 뭐라고 저렇게 설쳐대나'라고 속으로 흥보며 혀를 끌끌 찼다. 램미팅이 끝난 후 필자는 친구에게 "와, 너 화 안나? 나라면 강냉이 털었을 듯"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구는 "어? 난 괜찮은데? 그냥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러한 친구의 태도는 흡사 달관의 경지에 오른 도인을 보는 듯했다.

더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다. 램미팅 때 친구에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던 박사가 연구실로 들어오더니 "어... 아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너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미루보살이 환생하면 이런 모습이겠군. 그 누구도 이 친구를 화나게 만들 수 없었다. 왜냐면 그가 화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루소, 니체, 몽테뉴 등 철학자들의 통찰에서



###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지음/김하현 옮김/어크로스

삶의 지혜를 찾는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저자는 "삶의 많은 것들이 통제 바깥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다. 바로 생각과 충동, 욕망, 혐오감, 즉 우리의 정신적·감정적 삶"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에픽테토스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터무니없지 않나?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라며 "사람들은 주권을 타인에게 이양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이야기한다.

524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세상을 바꾼 K-LCC

양성진 지음/학원사

LCC(Low Cost Carrier·저비용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는 그 나라 항공소비자의 생활과 문화가 통째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면 그만큼 불편이 따라야 하는데도 이들 LCC는 '저가'와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그 때문에 항공업계와 경영학계에서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의 혁신 사례를 두고 '사우스웨스트 효



과(Southwest Effect)'라 일컫는다.

저자는 K-LCC(대한민국 LCC)의 등장을 기존항공사 2곳이 점유하고 있던 철용성 같은 국내 항공업계를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책에는 K-LCC의 태동기부터 성장기까지 지난 약 20년간의 역사가 담겨 있다.

552쪽. 3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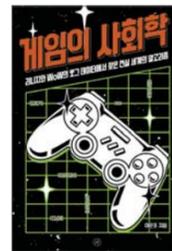
### 게임의 사회학

이은조 지음/휴머니스트

### 극한 갈등

아만다 리플러 지음/김동규 옮김/세종서적

'WoW'라는 게임에서 설정 오류로 캐릭터 대부분이 감염돼 죽은 '오염된 피' 사건이 발생했다. 게임 서버 관리자는 질병이 퍼지는 걸 막고자 감염된 캐릭터들을 격리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감염된 캐릭터 중에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구석진 곳에 가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도 있었지만, 도시 곳곳을 누비며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감염시키는 캐릭터도 있었다. 17년 전 가상 세계 속 '오염된 피' 사건과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책은 온라인 게임의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통찰을 제시한다.



224쪽. 1만6500원.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반목 등 인간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 책에 따르면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건전한 갈등'과 '고도 갈등'이다. 건전한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포용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반면 고도 갈등은 양자간 대결 구도를 형성해 우리 편과 상대방 중 한쪽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싸우게 만든다. 책은 고도 갈등을 건전한 갈등으로 변화시킬 방법을 알려준다.

472쪽. 2만3000원.



▲日증시, 금융긴축·인플레이 우려로 한 달 만에 최저... 닛케이 1.53% ↓ /사진 뉴시스  
▲ 사무실 복귀 요구하는 美 기업, 직원 반발에 갈등 중

▲ 대만 코로나 신규 3만4118명·총 534만2106명... 36명 사망  
▲ 美 백악관 "며칠 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안 추가 발표"



▲ 금리 인상에 꺾인 美 집값... "폭락 가능성 낮아"  
▲ 獨 "인도·태평양서 군사 존재감 확대... 중국 견제" /사진 뉴시스